

2009년 4월 2일

주제: 당유란 형제와 그 동역자들의 분열적인 일

수신: 독일, 스위스 및 이탈리아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등등과 같은 적극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점들이 유럽에서 교회를 산출해 온 요소들이었으며, 성도들을 계속 풍성하게 양육해 온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요점들을 숙고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미 발생했고, 또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심각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당유란 형제와 그 동역자들의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및 스위스에서 주의 회복을 돌보는 동역자들이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형제들로서, 우리는 수년 간 그들 일과 그 동역자들에 대해 관용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 동역자들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하나의 일(one work) 안으로 섞이면서 아울러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형제의 일은 몸의 하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리어 자신들 토대인 당유란의 일과 관련된 독립적이고 분리된 모임을 양산하기 위해 주의 회복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단독적인 일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의 일 자체와 그 동역자들은 시간이 흘러 감에 따라 더욱더 단독적인 형태로 분리되었고, 당 형제의 일이 초래한 손상은 그의 일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당 형제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교회들과 이 사역 안에서 소중한게 여기는 교통과 동역 안으로 들어올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의 참된 모든 믿는 이들과의 교통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한편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분열을 초래하는 자들에 관한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 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고도 엄중한 문제입니다. 회복역의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에 대한 다음의 각주를 숙고해 보십시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교리나 실행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반대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그 목적은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또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및 스위스 레겐스도르프에서의 소극적인 말과 분열적인 행위

슈투트가르트에서 당 형제의 일을 활발히 선전하던 알렉스 케머(Alex Kemmer)는 2006년 그의 형제 로빈슨 케머(Robinson Kemmer)와 당 형제의 다른 동역자들과 합류하였습니다. 2006년 8월 6일 로빈슨은 레겐스도르프에서 있었던 만찬 집회 동안 성도들이 당 형제의 일과 관련된 방식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큰 목소리로 여러 차례 집요하게 성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로빈슨은 신언 집회에서까지 찬송가를 계속 부르게 하려고 했고, 교회 지체들로부터 그런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를 볼 때 그가 당유란 형제의 실행을 선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명백했습니다. 비디오 메시지를 본 오후 집회 동안 로빈슨은 집회 장소의 뒷자리에 앉아서 비디오 집회 메시지 중 자신이 “수궁할 수 있는 것”과 “수궁할 수 없는 것”들을 영어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반박과 행동들은 많은 성도들을 언짢게 했고, 교회 집회들을 어지럽혔습니다.

2006년 11월 26일 슈투트가르트의 신언 집회에서 알렉스와 로빈슨은 형제들의 신언, 특히, 시대의 사역과 관련된 신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異義)를 제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로빈슨은 위치만 니 형제님과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사역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며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또 그 이전까지 알렉스와 로빈슨은 교회의 인도하는 몇몇 분들에게 교회 서적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 사용과 아울러 동 형제의 출판물 <오늘의 양식(Daily Food)>도 성도들이 사용하게 하도록 할 것,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living stream ministry)에 교회 용도의 서적 주문하는 일을 중지할 것과 교회의 기도 목록 안내문에 당 형제의 일과 관련된 행사 내용들을 게재할 것 등을 촉구했었습니다. 11월 26일 집회에서 케머 형제들이 보여 준 시대의 사역에 대한 강한 공개적 반박은 성도들로 하여금 알렉스와 로빈슨이 온 땅의 교회들이 수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역과는 대치되는 당 형제만의 일을 경쟁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얼마 후 케머 형제들은 슈투트가르트 교회와 교통을 끊어 버렸습니다.

독일 뢰르라흐(Lörrach)에서의 경쟁적 집회들과 분열적인 일

레겐스도르프 교회는 2006년 8월 10일 독일에 있는 성도들과 스위스의 독일어권 성도들에게 2006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쉬임 집회들에 참석하도록 초청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 쉬임 집회는 정례적 연중 집회로서 독일어권역 성도들이 늘 참석하던 것이었습니다. 알렉 케머는 8월 11일 레겐스도르프 집회 일정과 정확히 충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만들어진 뢰르라흐에서의 집회에 대한 초청장을 해당 모임의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당 형제의 동역자들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동역자들과 아무런 교통도 없이 그들의 모임을 위해 뢰르라흐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형제들은 2006년 10월 알렉스와 로빈슨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교통에는 당 형제의 동역자들인 솔로몬 마(Solomon Ma) 및 조아오 안토넬리(Joao Antonelli)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교회 형제들은 뢰르라흐의 집회로 야기된 혼동과 교란에 관한 문제를 교통하였고, 솔로몬은 이에 대해, 그러면 그런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관하는 뢰르라흐에서의 집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확인과는 반대로, 그와 당 형제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 및 동역자들과 교통 없이, 또한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야기했던 혼란과 불편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자적으로 뢰르라흐에서의 특별집회와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뢰르라흐는 이제 독일에서 당유란 형제의 일의 핵심부가 되어 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뢰르라흐는 당 형제의 동역자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그 일의 확산을 시도하는 근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뢰르라흐는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의 일반적인 교통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들은 섞임 특별집회들이나 유럽에서의 일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임들은 많은 경우 유럽에 세워진 기존 교회 집회들과 상충됩니다. 뢰르라흐에서의 그들 모임은 이제 당유란 형제의 파행적인 가르침 및 실행들과 더불어 당유란 형제의 일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단독적인 일

2001년 캘리포니아 엔게디 캠프(Engedi Camp) 및 특별 집회 본부에서 있었던 국제 동역자 교통에서 당 형제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미구엘 마(Miguel Ma)와 그의 일에 관련되었던 다른 몇몇 사람들은 유럽에서의 자신들 일을 철회하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조아오 안토넬리 및 당 형제의 한 동역자는 2002년 이탈리아로 이주하였고, 유럽 동역자들과의 동역 가운데 진행되고 있던 일이 이미 존재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당유란 형제 자신의 일을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역자 형제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조아오의 존재나 일을 처음 한 동안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아오의 동생인 케사르 안토넬리(Cesar Antonelli)가 조아오에 합류했고, 그들은 솔로몬 마 및 다른 자들과 함께 이탈리아의 몇몇 지방들에서 당유란 형제의 일을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방들 중에는 당시 가정 집회나 기도 집회를 위해 함께하던 주의 회복 안의 성도들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다섯 분의 형제들이 조아오를 직접 만나 그에게 교통의 문을 열고, 이탈리아에 이미 세워져 있던 특별 집회와 모임에 그를 초청하기 위해 이탈리아 만토바(Mantova)로 갔습니다. 형제들은 조아오에게 유럽의 동역자 형제들과 교통하면서 섞이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

록 요청했지만, 그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해 여름 조아오 및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이탈리아 시르미오네(Sirmione)에서 자신들 일을 위한 첫 특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유란 형제의 일은 시르미네오(Sirmione)에서의 특별 집회, 2007년 3월 솔로몬, 조아오 및 케사르가 함께 했던 로마에서의 특별 집회, 2007년 12월 만토바에서의 CEAPE 훈련, 2007년 12월 말 밀라노에서의 특별 집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 형제의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2008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국제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다른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일, 특히 이탈리아에서의 일과 아울러 동역 가운데 함께하는 특별 집회에 참석하도록 교회 형제들이 그들을 수차 초청해 왔음에도, 조아오는 당 유란 형제의 일과 관련된 집회를 제외한 그 어떠한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당유란 형제의 일은 단독적이고 감춰진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순수하게 주의 회복의 길을 취하고 있는 이탈리아 성도들 가운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단독적인 일

솔로몬 마와 조아오 안토넬리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몇 년간 일을 한 후 2006년 10월 조 데이비스(Joe Davis), 팀 클리맥(Tim Klimmek), 포이 리우(Po-Yi Liu)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교회 동역자들과 교통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통에서 솔로몬 마는 자신들이 교통을 그렇게 피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신이 교회 형제들과의 교통은 의도적으로 연기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데이비스 형제와 교회의 다른 동역자 형제들은 그러한 독단과 당유란 형제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일의 정도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처음 교통 부분에서 솔로몬은 형제들에게 벤슨 필립(Benson Phillips) 형제가 유럽에서의 당유란 형제의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보장했지만, 그 교통의 나중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이탈리아와 기타 유럽 지역에서 회복의 일반적 교통과는 동떨어진 모임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벤슨 형제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솔로몬은 당 형제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미의 특정 형제들을 힐난했고, 또한 주의 회복 안에서의 단일한 출판 형태를 지지하는 동역자 형제들을 비난하면서 당 유란 형제의 서적 유포에 대해 변호했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에 있던 조아오를 방문한 다섯 명의 교회 형제들, 2006년 런던 교통에 참석했던 조 데이비스, 팀 클리맥, 포이 리우 및 유럽의 교회 동역자 형제들, 2006년 10월 9일자로 솔로몬과 조아오에게 서신을 보냈던 조 데이비스 형제,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교회 동역자 형제들도 유럽에서의 섞이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거듭 요청하였지만 솔로몬 및 조아오는 그들의 독립적이고 분열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 일이 독일, 이탈리아 및 스위스의 여러 도시에서 거점을 마련할 때마다 나타난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

는 생명의 순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관한 진리에 의하면, 몸이란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지방 교회들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는 몸의 하나에 관한 진리에 반하는 것이다. 각 지방 교회는 우주적인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방 교회도 다른 지방 교회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교회가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교회들로부터 분리시킨다면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전달 분배와 순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몸의 생명체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에베소서 라이프스타디 3, 293쪽)

동역자 형제들과 유럽 교회들이 당 형제의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교회와 섞이는 일에 함께 하도록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는 혼란, 분리 및 분열이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및 스위스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들이 끼친 손상은 당 유란 형제의 일이 독립적이고 분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대하면서 그들 일에 전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공유하는 이들로 여겼던 누군가가 것처럼 종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우리를 떠나 자신들만의 일을 취하는 것에 대해 놀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교회들에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30). 바울의 그와 같은 말이 당 형제의 사례에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 유란과 그의 분열적인 일에 관해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 경고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17절의 가르침대로, 당유란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만 하며 그들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디도서 3장 10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권고한 후에 거절하십시오” 라는 말씀에 따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거절하여야만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따라 교회 안에서 무리를 형성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분파적인 사람입니다” (디도서 3:10, 각주 1).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려면, 당파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권고한 후에 거절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분열적인 사람과의 교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서 3:10, 각주 2).

우리는 성도들과 교회들 간의 건강한 한마음 한뜻을 귀하게 여겨야만 하며, 그 어떠한 전염으로부터도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경계가 없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을” (빌립보서 1:9) 가진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유란

형제의 일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종파적이고 분열적인 당 유란 형제의 일에 관한 이 경고를 기도하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의 일과 그것을 선전하는 사람들과 일체의 교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의 일에 영향을 받은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접촉해 온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받아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과, 아울러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계신 지방의 인도하는 형제들과 교통하는 상황에서만 그 문제를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일, 스위스 및 이탈리아의 교회들과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조 데이비스(Jo Davis), 울리히 폰타나(Ulrich Fontana), 팀 클리멕(Tim Klimmek), 빌 레발런(Bill Lewallen), 포이 리우(Po-Yi Liu), 팻 슈톡클린(Pat Stocklin), 조 켈리(Joe Xerri)



Joe Davis



Ulrich Fontana



Tim Klimmek



Bill Lewallen



Po-Yi Liu



Pat Stocklin



Joe Xerri